

청와대에서 손 맞잡은 역대 대통령 가족들

- 7. 29. 역대 대통령 가족 6인,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함께 관람
- 참석자들,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정신 확장, 화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 구축에 힘 쏟겠다”
- 박보균 장관 “선대의 갈등·대립을 후대가 통합·전진의 정신으로 역사적 화해를 하는 상징적인 장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 6인이 29일(토) 아침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람하고 ‘자유와 통합, 연대’의 시대 정신의 확장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초대한 이번 모임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근혜 대통령 동생),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만남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자학(自虐)과 부정의 대통령 역사관에서 벗어나 통합과 긍정의 대통령 문화가 퍼지고 이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박보균 장관은 “우리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끄셨다. 이 자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의 고뇌와 결단, 헌신과 국민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 기억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역동적인 현대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후대의 대통령 가족들이 역사적 화해를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과 전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만들자는 다짐의 만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청와대에서 펼쳐졌던 리더십의 역사들을 상징 소품과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은근하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 일각에서 득세했던 자학적인 역사관, 공과의 논쟁에만 치중하거나, 약점 찾기 위주의 대통령 역사문화를 새롭고 건강하게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 했다.

청와대 본관(세종실, 인왕실)에서 열리고 있는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회는 지난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 전시 콘셉트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소품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고, 역사의 상상력을 던지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과 생각이 충실히 담겨있다.”라고 소개했다. 6월 1일 개막한 전시회는 지금까지 23만 명이 관람,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8월 28일(월)까지 계속된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다.

▶(조혜자)=“아버님이 쓰시던 영문 타자기가 꿈틀대는듯하다. 감회가 새롭다.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던 그 시절 아버님은 직접 외교 문서를 쓰셨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셨다. 자유민주주의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었다.

▶(윤상구)=“아버지가 경무대라는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셨다. 여기 전시실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 나라 발전의 집념, 국민 사랑과 통합의 대한민국만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

▶(박지만)=“젊은 세대에게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는 멀어서 어려웠다. 아버지는 군인이 되시기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다. 상징 소품인 반려견 스케치는 관람객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다. 아버지의 가난 극복과 조국 근대화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누나(박근혜)의 대통령 시절 사진 ‘저도의 추억’은 어머니가 숨진 뒤 쓰신 아버지의 시 제목인데, 어린 시절 가족 모두가 저도에서 보낸 휴가가 기억난다.”

▶(노재현)=“아버지는 노래를 잘하셨고 통소와 휘파람 숨씨에다 부대마다 노래(부대歌)를 작곡하셨다. 멕시코 방문 때 환영식에서 ‘메사메무초’를 부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이전에 음악 정상외교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당시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이 말하시곤 한다. 아버지 재임 중 88 서울 올림픽 개최와 북방외교의 집념은 국민 통합의 지평을 뚜렷이 확장하기 위해서다.”

▶(김현철)=(상징 소품인 조강화 보며)“새벽 조강은 아버지에게 국정에 대한 절대 고독과 그리고 담대한 결심을 하는 일종의 집무 의식(儀式)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 실명제를 선포한 그날 새벽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유흔처럼 강조하신 말씀이 ‘통합과 화합’이셨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자유 민주주의 성취 이후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주문이기도 하다.”

▶(김홍업)=(김대중 대통령이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한 청와대 만찬 기념사진을 보면서)“우리 역사에서 드문 사진이다. 아버지는 회고록에서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들과 국정 경험을 나누면서 국난 극복의 지혜를 얻고자 했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 현장 영상 등록 웹하드 주소: https://drive.google.com/file/d/1aze1NP3LIX3cxhUgrKe-keB3AF0H0Idz/view?usp=drive_link

담당 부서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	책임자	과장	최영진 (02-3771-8631)
		담당자	학예연구사	김권정 (02-3771-8635)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